

업무상 과로 인정 기준에 대해



유성규
성공회대 겸임교수
공인노무사

들어가며

근로시간제도 개편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가 뜨겁다. 최근 정부가 주 12시간까지 허용되던 현행 연장근로시간을 사업장 상황에 맞게 늘릴 수 있는 개편안을 발표했다기 때문이다. 근로시간은 노동자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과로성 질병인 뇌심혈관계 질병의 산재 인정 기준도 근로시간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이번 근로시간제도 개편은 산재 인정 기준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 과로사 실태와 업무상 과로 인정 기준을 살펴보기로 한다.

업무상 질병 사망 원인 1위, 과로사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2. 12월말 산업재해 발생현황’에 따르면, 2022년에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1,349명 중 뇌심혈관계 질병으로 사망한 노동자가 486명(36%)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다만, 이 통계는 산재보험 승인통계를 기초로 하고 있으므로 정확한 업무상 질병 사망자 통계는 아님). 노동자가 장시간 근로에 방치될 경우, 육체적 피로는 물론 뇌심혈관계 질병과 같은 과로성 질병의 발병 가능성도 높아진다.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의 연평균 근로시간이 최상위권이라는 사실은 예전부터 알려진 사실이지만 이같은 노동 환경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다.

만성적인 업무상 과로 판단 기준

- 1)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 2)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업무부담 가중요인)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업무상 과로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

업무상 과로로 인한 뇌심혈관계 질병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초단기 업무상 과로’에 기인한 경우, ‘단기 업무상 과로’에 기인한 경우, ‘만성적인 업무상 과로’에 기인한 경우로 나뉠 수 있다.

초단기 업무상 과로란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를 말한다. 이는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심혈관계 질병이 그 자연 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되었을 때 인정된다.

단기 업무상 과로란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를 말한다. 이는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량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에 1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뀌었을 때 인정된다.

만성적인 업무상 과로란 “업무량·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를 말한다. 이는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인정된다. 이 경우, 업무량·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노동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㉞

- ①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② 교대제 업무 ③ 휴일이 부족한 업무
 ④ 유해한 작업환경(한랭, 온도변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 ⑤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⑥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⑦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3)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2항의 업무부담 가중요인
 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한다.

